

시론

기억하자, 지도자는 국민이 만든다



김 선 기 전남도립대 웰니스학과·문학평론가

2025년 6월3일,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선거는 단지 하나의 절차나 형식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한 사회가 어디로 나아갈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다. 에 이브라함 링컨은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고 말했다. 총알은 잘나에 사람을 해칠 수 있지만, 투표는 수십 년에 걸쳐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정치에 대한 회의론이다. "누가 되어도 똑같다", "정치에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간의 실망과 피로를 반영한다. 그러나 그런 회의가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순간, 정치는 가장 중요한 시간에 시민 없는 무대가 된다. 그리고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은 대개 국민이 원하던 지도자와는 거리가 먼 이들이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우리의 일상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장바구니 물가, 아파트 청약 제도, 학교 급식, 대중교통 요금, 노인 복지

육아 정책까지, 정치는 시민의 식탁 위와 골목길 곳곳에 스며 있다. 투표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가장 공식적이고 강력한 방식이다. 따라서 투표를 외면하는 것은 곧 책임을 포기하는 일이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로 유지되는 체제이며, 그 참여의 핵심이 바로 선거다. 정치에 실망했다고 등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더 나은 정치를 요구할 자격조차 잃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 국민은 종종 수동적 존재로 전락한다. 선거는 이 구조를 바꾸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기회다. 이렇듯 유권자의 무관심은 민주주의의 빈틈을 만든다. 그리고 그 빈틈은 언제나 독선과 권위주의로 채워지기 마련이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경험을 반복해왔다. 역사는 국민이 무기력할 때 권력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수없이 증명해왔다. 투표는 단지 개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위한 선택이기도 하다. 내가 행사한 한 표는 이웃의 삶, 내 아이의 미래, 노부모의 안녕과 연결돼 있다. 유권자의 선택은 연대의 출발이며, 책임의 실천이다.

또한 선거는 우리 자신에게 묻는 시간이다. 나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나와 내 이웃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정치는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 그 자체임을 우리는 다시금 인식해야 한다. 기억하자, 지도자는 국민이 만든다. 좋은 지도자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는 유권자의 눈과 귀, 판단과 기대 속에서 태어난다. 반대로 나쁜 지도자 역시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산물이다. 민주주의는 '지도자를 뽑는 제도'가 아니라, '시민이 지도자를 만들 어가는 과정'이다. 우리는 자주 '정치 혐오'를 말하지만, 그 혐오의 이면에는 더 나은 정치를 향한 갈망이 있다. 그 갈망을 구체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투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이며, 그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주인에서 방관자로 밀어내는 일이다. 6·3 대선은 국가의 진로를 가르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단지 누가 당선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국민의 선택이자 선언이다. 지금 우리의 한 표는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다. 반드시 투표하자. 생각을 담고, 책임을 다하며, 희망을 향해 나아가자. 링컨이 말했다. 총알보다 강한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社說

광주시 1인가구 생애주기별 정책 추진 적극 공감

1인가구가 보편화되는 흐름에 맞춰 광주시 또한 정책을 선보였다. 이른바 '솔로 투게더(Solo Together)'로 사회적 고립과 돌봄 공백 문제를 선제 대응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해 설계됐다. 한마디로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일상에서 체감하는 즐거움을 더할 생활밀착형으로 구성했다. 청년 1인가구는 슬기로운 1인 생활(재무·경제 교육), 맛남의광장(함께 요리) 등을 추진한다. 중장년은 영양 가득 균형 식사(말반찬 요리), 예술 여행 행복 걸음(문화 체험), 노년층은 '오나라'(오롯이 나를 위한 건강라이프), '반려동물과 함께하게' 등으로 짜여졌다. 1인가구가 주요 형태가 됐다. 결혼 시기가 늦춰지면서 미혼, 비혼율이 증가하고 이혼도 늘어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도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혀 특별하지 않다. 또 필수적으로 고립, 돌봄, 빈곤과 연결돼 있다. 광주지역도 그 비중은 36.5%로 지속해 상승하는 추세다. 3가구 당 1가구 이상이다. 이미 주택, 식품, 가전, 유통 등 기업과 민간의 영역에서는 다양한 맞춤형 상품을 내놓으며 생활의 변화를 따라가고 있지

만 행정력, 정책 개발은 속도에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고 가치있는 삶을 누리도록 체계 가능한 지원이 시행돼야 하는 때다. 특히 경제적 위기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 안전망 강화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도 나홀로 쓸쓸하게 보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힘들다. 사실 그동안의 가족 사책이 3인, 4인 위주로 이뤄지긴 했다. 광주시가 연령대 및 성별에 맞춰 1인가구 보호에 나선 것은 무척 시의적절하다. 5개 자치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추진하는 사업이 시효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와 함께 1인가구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가져야 하겠다. 지역 현실에 맞는 대안을 폭넓게 마련하고 적극 실천해야 한다. 현장에서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수요자 중심으로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1인가구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내년 3월 목포대-전남도립대 통합 출범 차질없길

국립목포대학교와 전남도립대학교가 내년 3월 '국립목포대학교'로 신입생을 모집, 새롭게 출범한다. 교육부가 최종 승인했다.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위기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중대한 이점이다. 정부의 지방대 통합 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양 대학은 2024년 1월부터 논의를 본격화하고, 공동위 및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캠퍼스 특성화 전략, 학사 및 행정조직 개편, 전문학사·학사 간 학제 연계 등에 합의했다. 이후 구성원 의견 수렴, 학내 설명회,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통합 방안을 확정짓고 12월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에 교육부는 타당성 뿐 아니라, 캠퍼스 운영, 학사 구조,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왔다. 지방대학 혁신의 선도 역할을 기대하게 된다. 국내 최초로 2년제와 4년제 학위과정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유연하게 연계 하는 고등교육 모델이다.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거점 국립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세

부 이행 과제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야 한다. 단순한 대학 간 병합을 넘어, 실무 중심의 전문 대학과 연구 중심의 국립대 교육을 결합한 패러다임을 여는 의미가 있다. 통합 목포대의 대학 본부는 무안군 도립캠퍼스에 두며, 담양캠퍼스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산업기능 기반 시설로 운영된다. 전남의 신성장을 선도하고 최고급 인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과정으로 재편한다. 목포대와 도립대는 학적 및 규정 제·개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캠퍼스 인프라 개선 등 할 일이 많다. 앞으로도 긴밀 협력해야 한다. 더 나은 최적의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의지를 결집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설계와 성장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또 경제 회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 역시 재정, 인프라, 산학 협력 등을 적극 지원한다. 지방대 구조 개혁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교직원들의 역량 강화도 모색,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교육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

기고

광장 여성들의 목소리에 정치가 응답할 차례



김 중 분 前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

'빛의 혁명'은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민운동으로 전개됐다. 특히 2030 여성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두드러졌다. 이들은 기존의 시위 참여 방식에서 벗어나 응원봉과 K-팝 노래를 활용해 집회의 분위기를 밝고 역동적으로 만들었으며, 이는 정치적 표현의 새로운 형태로 주목받았다. 2030 여성이 주축이 된 여의도와 광화문에서의 밤샘 집회, SNS를 활용한 선결제 문화, 농민들과 연대를 이룬 남태령 집회는 윤석열을 둘러싼 검찰과 권력층의 침용성에 균열을 일으키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2030 여성들은 대선의 스윙보터(swing voter·부동층)로 알려져 있다. 특별히 지지하는 정당이 없이 그때 그때 선거 때마다 필요에 의한 투표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한 여론조사기관의 발표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있다. 여론조사기관(투티브릿)이 페어리전에서 4월 7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39세 여성 1천명을 대상으로 웹소사를 실시했는데, 2030 여성 5명 중 1명이 탄핵집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30 여성들은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광장과 온라인 공간에서 주저하지 않고 드러내는 경향이 있었다. 대단히 정치적이고 현실 참여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10명 중 6명은 페미니즘을 지지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페미니스트라고 말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강했다. 응답자들의 81.8%는 페미니스트라고 드러내면 '온라인에서 공격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성평등에 대한 요구가 높고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경향이 있는 한편 공개적으로는 페미니스트임을 밝히기 꺼려하는 2030 여성들이 광장으로 나와 다양한 시민들과 연대하면서 '빛의 혁명'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번 대선에서 단순한 공약 나열을 바라지 않았다.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는 성폭력에 맞서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원했다. 특히 디지털 폭력으로부터의 안전과 그 실용적 해결을 최우선정책으로 꼽았다. 그밖에 경제적 불평등 해소, 임금 격차 해소, 안전한 임신중지 지원 등 현실을 바꿔줄 정책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들이 내세우는 구호나 슬로건을 보면 이런 점은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차별 없이 함께 잘 사는 나라', '여성의 일상은 전장이다', '출산은 의무가 아니다', '우리가 국가다', '여성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구호에는 정치 무관심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요구하는 유권자 2030 여성의 바람이 담겨 있었다. 후보 시절부터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건 윤석열은 여성을 사회적 갈등의 대상으로 만들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전략을 반복해왔다. 이로 인해 여성 혐오와 배제가 정당화되는 분위기가 확산됐고, 대통령 당선 이후 정부 정책에서 여성과 젠더를 지워나갔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왔다는 궤변을 늘어놓다가 물러났고, 장관 없는 여성가족부는 존재감 없는 유령부처가 되어갔으며 성평등 정책은 후퇴했다. 이제 정치권이 2030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적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차별금지법이 있는 사회, 여성을 향한 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 성평등 실현을 지향하는 사회는 여성만을 위한 사회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해 가는 과정이다.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는 사회는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 제2대 대통령 선거 열기가 뜨겁다. 유세 현장마다 음악과 춤과 구호가 어우러져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조기대선을 치르기까지 '빛의 혁명'을 이끌어온 광장의 시민들에게 정치권은 너무나 큰 빚을 졌다. 그리고 그 '빛의 혁명' 한 가운데 2030 여성들이 있었다. 그들이 내건 슬로건을 현실화할 수 있는 실행 계획과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 광장 여성들의 목소리에 정치가 응답할 차례다.

아침물어는 詩

비 오는 날 국어 시간

강진순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우리창 가득
개울 같은 글씨 적어놓고
다듬거리는 민화의
책 읽기처럼
목소리 가는 명화의
책 읽기처럼
속살거리며
책을 읽는다
알아들 수 없는
혼자만 아는 소리로
또로록...
푹·
푹푹..
(동시집 '느림보가 된 백서', 아동문예, 2019)

[시의논] 기관사인 워즈워드는 시무지개에서 노래했다.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 뛰노나니 너무나 어려서 그러하였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며 나 노년이 되어서도 그러하리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다면 지금이라도 내 목숨 거두어 가소서.' 이 시구는 일생을 동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경건한 다짐이다. 그는 덧붙인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동심에게서 배울 점은 많고 많다. 맑고 순수함을, 가슴속에 감춰두는 게 없고 단순하고 정직함을, 새로운 세계에 호기심이 많아 놀림거림을, 사람과 사물들을 향해 깊이 감동의 시선을 보내기를 마다하지 않음을, 그들의 영동 발랄함은 또 얼마나 재미를 유발하는가. 기초인간학을 표방하는 아동문학은 아동에 국한되지 않는다. 동심을 회복하려는 모든 포괄적 동심주의를 대상으로 한다. 한글이 창제된 지 올해로 오백 여든 두 돌. '비 오는 날 국어 시간'은 한글을 전경화하고 있다. 빗소리와 함께 독창적이고 활동도와 완성도 높은 한글이 우리창에 뽀뽀한다. 한글 기호를 동심의 빗방울이 읽어낸다. 자연과 동심의 어우러짐이 낳은 영동적 사유의 공간. 더듬거림 속도는 느리지만 그의 독자적 해석이 유쾌하고 가상하다. <윤상현·시인>

폭염 시 온열질환 증상·응급처치 알아두자

독자투고



올여름 이른 무더위로 인해 폭염 특보가 잇따르고 있다. 폭염은 지구온난화 또는 자연적인 대기 흐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기상 현상으로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낮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 이상이면 폭염경보가 발령된다. 폭염 시 주의해야 할 주요 질환으로는 열경련과 열사병, 열사병이 있으며 각각 증상과 응급처치법이 다르다. 열경련은 과도한 땀 배출로 인한 전해질

손실로 발생한다. 이온음료 섭취와 스트레칭이 필요하다. 열사병은 강한 햇볕 아래 장시간 노출돼 생기며 두통, 구토, 어지럼증이 나타나고 심하면 실신에 이를 수 있다. 이 증상이 나타나면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체온을 낮춰야 한다. 열사병은 체온조절 중추가 손상되는 매우 위험한 상태다. 의식이 없고 고열과 빠른 맥박이 지속되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폭염 시 충분한 수분과 염분을 보충하고, 햇볕을 피하며, 증상 발생 시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름철 건강을 지키기 위해 폭염 대응 요령을 잘 숙지하고 실천하시길 바란다. <임준우·신안소방서 신안119안전센터 소방사>

이륜차 안전수칙 준수해야

요즘 날씨가 화창하고 온화해 울긋불긋 꽃노니가 만연한 5-6월경에는 이륜차 동호회원들의 라이딩 활동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 무시는 물론 끝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결국 크게 다치거나 더 나아가 목숨을 잃는 사고까지 속출하고 있다. 이처럼 이륜차는 일반 차량하고는 구조적으로 안전상 신체 보호 수단이 적은 만큼 혹여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까지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나와 내 가족이 소중하다면 즐거운 라이딩을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꼭 준수했으면 한다. <이재복·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장>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두 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10(가)·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